

2018년 1월 10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사상 최고치 Rally 지속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97%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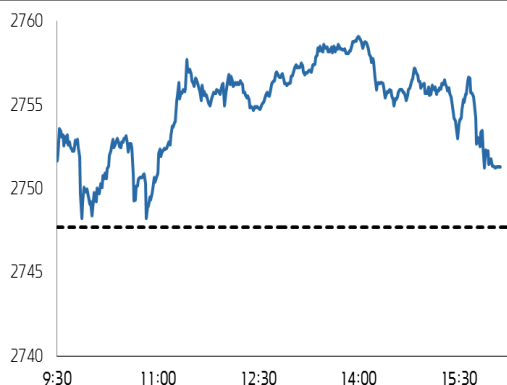
바이오업종 Vs. 반도체업종

유럽증시는 앵글로아메리칸(+3.02%) 등 원자재주와 모리슨(+3.64%) 등 소매판매업종이 상승 주도. 미 증시는 업종별 이슈에 따라 변화를 보이며 상승. 특히 투자의견이 하향된 철강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영향을 받은 반도체주는 하락 했으나, 주주환원 정책이 기대되는 바이오 헬스케어주와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은 금융주가 상승하며 미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 지속(다우 +0.41%, 나스닥 +0.09%, S&P500 +0.13%, 러셀 2000 -0.11%)

제약 바이오 업종은 무디스 보고서에 힘입어 상승. Moody 는 새로운 세법에 따라 미국 제약 회사들의 현금 보유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 이는 해외에 있는 약 2 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 중 일부를 'M&A, 주주배당, 채무상환, 자산주 매입' 등에 사용 될 것이라고 전망한 데 따른 결과. 무디스는 M&A 에서 길리어드사이언스, 암젠, 셀진, 화이자가 가장 큰 인수자가 될 것이라고 발표. 각 회사는 장기적인 성장 문제에 직면 해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대규모 인수 추진 의사를 발표했다는 점에 주목. 또한 무디스는 제약업종의 주주 배당이 상승 할 것이라고 언급. 현재 바이오젠과 셀진은 주주 배당을 하고 있지 않지만 배당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

반면, 반도체 업종은 부진. NAND 메모리 칩 가격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부진한 실적 발표에 따른 우려감에 기인. 더불어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의 1 분기 이익 전망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 한 점도 부담. 지난 12 월 DRAM eXchange 가 2018 년에 NAND 공급(+43%) 증가보다 수요(+38%) 증가 보다 커 공급 과잉 상황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언급. 이 결과 2018 년에 NAND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등 주변 여건도 부담. 더불어 인텔 CEO 가 CES 기조연설에서 마이크론과 12 년간 협력관계를 해소한다고 발표한 점도 부담. 비록 3D Xpoint 공동 개발 및 생산은 지속 하겠지만, 이제는 각기 다른 길을 가야 할 때라고 발표. 지난 12 년간 이어왔던 공동 작업이 사라지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향후 제품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2,510.23	-0.12	홍콩恒生		31,011.41	+0.36
KOSDAQ		829.99	-1.13	영국		7,731.02	+0.45
DOW		25,385.80	+0.41	독일		13,385.59	+0.13
NASDAQ		7,163.58	+0.09	프랑스		5,523.94	+0.67
S&P 500		2,751.29	+0.13	스페인		10,426.50	+0.27
상하이종합		3,413.90	+0.13	그리스		841.28	+0.50
일본		23,849.99	+0.57	이탈리아		23,004.98	+0.7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주 상승

AT&T(-0.69%), 버라이즌(-0.37%)는 민주당이 2018년 중간선거에서 망 중립성 폐지를 선거의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발표한 여파로 하락 했다. 듀크에너지(-1.17%), PG&E(-0.86%) 등 유틸리티 업종과 SPG(-2.20%), 리얼티 인컴(-1.86%) 등 리츠금융 회사는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하락 했다. 한편, 마이크론(-5.86%)과 인텔(-2.50%)은 12년간 이어오던 협력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점이 부담이 돼 하락 했다. 더불어 삼성전자 실적 부진 여파로 영향을 줬다. 퀄컴(-1.51%), 브로드컴(-1.38%), AMAT(-1.90%) 등 반도체 관련주도 동반 하락 했다. AK스틸(-8.28%)은 제프리스가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하락 했다. US스틸(-2.56%) 등 철강주도 동반 하락 했다.

반면, 길리어드사이언스(+4.97%), 암젠(+1.54%), 바이오젠(+2.04%) 등 바이오업종과 J&J(+1.59%), 에브비(+0.75%) 등 대형 제약주는 주주환원 정책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며 상승 했다. 금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JP모건(+0.51%), 웰스파고(+0.35%)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 상승 했다. 씨티그룹(+1.05%), BOA(+0.50%), 골드만삭스(+0.85%) 등도 동반 상승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15%	대형 가치주 ETF	+0.15%
에너지섹터 ETF	-0.70%	중형 가치주 ETF	-0.11%
소매업체 ETF	-1.06%	소형 가치주 ETF	-0.30%
금융섹터 ETF	+0.78%	배당주 ETF	-0.33%
기술섹터 ETF	-0.26%	변동성 ETF	+1.15%
소셜 미디어업체 ETF	-0.60%	대형 성장주 ETF	+0.21%
인터넷업체 ETF	-0.25%	중형 성장주 ETF	+0.17%
리츠업체 ETF	-1.14%	소형 성장주 ETF	+0.11%
주택건설업체 ETF	-0.09%	신흥국 고배당 ETF	0.00%
바이오섹터 ETF	+1.88%	신흥국 저변동성 ETF	-0.18%
헬스케어 ETF	+1.18%	하이일드 ETF	-0.24%
곡물 ETF	+0.21%	물가연동채 ETF	-0.33%
반도체 ETF	-0.94%	Long/short ETF	-0.3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55.87	-0.32%	+2.38%	+9.04%
소재	393.75	-0.21%	+2.37%	+6.09%
산업재	662.00	+0.60%	+3.01%	+5.44%
경기소비재	812.55	+0.12%	+1.92%	+5.26%
필수소비재	588.02	-0.22%	+0.66%	+1.20%
헬스케어	994.31	+1.10%	+2.71%	+3.80%
금융	474.69	+0.71%	+2.38%	+2.42%
IT	1,154.03	-0.26%	+2.87%	+4.81%
통신	161.12	-1.83%	-3.20%	+1.92%
유틸리티	260.52	-1.00%	-1.71%	-7.48%
부동산	198.81	-1.14%	-1.90%	-2.7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선물 동향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0.40% MSCI 신흥 지수도 0.16%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407 계약)에 힘입어 1.05pt 상승한 332.0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071.7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하락 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따른 부담과 인텔과 마이크론의 협력이 깨졌다는 점이 부담이 됐다. 특히 인텔과 마이크론은 12 년간의 협력이 해소되며 각자의 제품을 가지고 경쟁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 관련 제품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하락폭을 키웠다. 한국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다. 더불어 미국 철강업종이 투자의견 하향 조정 여파로 하락한 점도 부담이다. 최근 글로벌 철강 업종이 중국과 미국의 수요 증가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미국 철강업종 하락 여파로 차익욕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일 금융위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일명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일부 내용이 발표된 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전일 장 후반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주 하락은 전일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는 점, 국제유가가 미국 원유재고 감소 기대에 힘입어 3 년내 최고치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이다.

한국 증시는 이처럼 주변 여건이 악재성 재료와 호재성 재료가 혼재되어 있어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른 움직임이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둔화

미국 11 월 채용공고는 지난달(592 만 5 천건) 보다 감소한 587 만 9 천 건으로 발표되었다. 지난 금요일(5 일)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고용자수가 감소한 데 이어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여전히 견조 하다는 점에서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미국 12 월 소기업낙관지수는 지난달(107.5)보다 둔화된 104.9 로 발표되었다.

독일의 11 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3.4% 증가했다. 한편, 독일의 수출도 전월 대비 4.1% 증가하는 등 독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 유가 상승세 지속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EIA 가 단기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8 년 WTI 전망치를 전월 대비 4.8% 상향된 55.33 달러, 브렌트유 또한 전월 대비 4.3% 상향 된 59.74 달러로 발표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EIA 가 2018 년 미국의 산유량을 소폭 상향 조정(일간 1,002 만 배럴→1,027 만배럴)한 점은 부담이다. 미국의 산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국제유가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달러화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 강화로 미국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유로화가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하면서 상승했다. 반면, 엔화는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축소가 연내 부양책 축소 기대로 이어지면서 달러 대비 상승했다

미국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의 장기물 국채 매입 축소 및 유럽중앙은행의 연내 자산매입축소 가능성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이 강화된 데 연동해 상승했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도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비철금속 또한 대부분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0.45% 철근도 0.395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2.96	+1.99	+4.29	Dollar Index	92.503	+0.16	+0.69
브렌트유	68.82	+1.53	+3.38	EUR/USD	1.1939	-0.23	-1.00
금	1,313.70	-0.51	-0.18	USD/JPY	112.61	-0.42	+0.28
은	17.010	-0.78	-1.14	GBP/USD	1.3540	-0.21	-0.37
알루미늄	2,162.00	-1.46	-4.67	USD/CHF	0.9829	+0.58	+1.15
전기동	7,137.00	+0.14	-1.26	AUD/USD	0.7823	-0.24	-0.09
아연	3,380.00	+0.54	+0.87	USD/CAD	1.2465	+0.35	-0.38
옥수수	349.00	+0.50	-1.20	USD/BRL	3.2492	+0.38	-0.38
밀	432.25	+1.05	-0.29	USD/CNH	6.5338	+0.56	+0.50
대두	963.75	-0.31	-0.10	USD/KRW	1067.1	+0.10	+0.56
커피	125.15	0.00	-3.88	USD/KRW NDF 1M	1071.78	+0.34	+0.87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546	+6.57	+8.24	스페인	1.505	+3.10	-9.80
한국	2.570	+3.30	+7.80	포르투갈	1.843	-0.80	-14.60
일본	0.071	+0.80	+2.30	그리스	3.652	-0.50	-40.90
독일	0.466	+3.50	-0.10	이탈리아	2.029	+5.00	-6.00